

##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의 참된 의미

성경말씀: 롬8:14-27

요즘 로마서 4장부터 한 주에 한 장씩 살펴보고 있다. 사람의 죄, 하나님의 해결책: 예수 그리스도,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된다. 하나님과의 화평, 열쇠,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.

구원은 죄 짓는 면허장이 아니다. 구원 이후에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.

죽을 때까지 두 개의 본성으로 인해 갈등, 롬7:24의 고통, 그러나 롬8:1의 기쁨, 정죄함이 없다.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데도 주님께로 간다.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출  
성령님께서 율법의 모든 의를 성취해 주신다(롬8:4).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설 수 있다.

세상 살면서 15절처럼 아바, 아버지 하고 간구하며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.

오늘은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려 한다. 성화의 핵심

구원받으면 성령님 안에서 살고 걷는다(갈5:25). 특징 24절,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소리인가?

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피상적인 것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. 롬8:14-27이 이것 설명

이 말씀들 피상적으로 읽으면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야?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. 한 마디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(14). 이제 몸이 변화되면 영원히 영에 속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이다. 성경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한다.

그런데 실제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.

듣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이 사실, < >

### 하나님의 아들은 고통을 겪는다(14-17)

성령님은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분(8:11),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

양자 삼으심을 통해(15), 확신할 수 있다(16).

구원 이후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?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통을 당할 사람(17)

기독교의 특징: 영광을 얻는다. 그런데 반드시 영광 전에 그분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있다.

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그분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다.

그 뒤에 영광에 참여한다. 예수님도 십자가 고통, 그 뒤에 영광(히12:2)

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(요1:12),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실제로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에 참여한다.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(17).

그런데 그 특권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고난 참여가 필수이다.

그분과 함께 통치하려면 먼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.

이것은 구원 이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필연적인 현상, 진리를 찾으면 나타난다.

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다 잘돼요 만사형통 번영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.

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의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이 없으면 무언가 이상한 것(눅14:27)

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마귀의 반대도 심하다. 전쟁을 치러야 한다.

여기 있는 분들: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는가? 희생이 있는가?

### 영화로운 아들의 신분이 주는 유익이 고통보다 훨씬 중하다(18)

영광,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함, 고전2:9

바울의 심각한 고통, 핍박, 고후4:16-18, 18절 고통 그리고 영광

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면 분명히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다. 우주 공간과 사람을 보라.

### 고통은 모든 창조 세상이 겪는 일이다(19-22)

창조 세상이 신음하고 있다(22). 산고(해산의 고통)를 치른다.

그리스도인들도 신음하고 있다(23). 성령님도 신음(26). 하나님, 사람, 창조 세상이 다 신음

신음: 고통이나 괴로움으로 고생하며 허덕임,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이 안 나옴. 끄끙대는 것

그러므로 신음은 온 세상 모든 창조물의 공통 언어, 성령 하나님은 신음 소리를 듣는다.

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신음을 피할 수 있는 창조물은 없다. 이것이 이 세상의 특징

그런데 이런 신음 소리가 주님 오시면 다 없어진다.

창조 세상의 신음: 소와 양과 사자, 물고기, 고래, 상어, 참새, 제비, 독수리, 벌레들도 다 신음  
이유: 사람의 죄의 결과(20), 부패의 정죄를 받음, 다 죽는다. 환경 문제, 살육 등으로 종의 멸종  
그 결과 창조물은 헛된 것에 굴복함, 집을 짓고 그대로 두면 다 남아진다.

열역학 제2법칙: 부패와 쇠퇴에 놓이게 된다.

그러나 주님 오실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(20-21). 소망 중에 복종하게 하셨다(20. 사11:9).

이사야서 11장, 35장, 65장, 의 회복

사람 때문에 부패, 사람을 통해 회복됨,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나타는 것 기대(19)

첫 사람 아담의 죄, 하나님이 사람의 몸 입고 오셔서 회복,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.

교회는 지상 재림이 있기 7년 전쯤 부활/휴거, 혼인 만찬, 그리고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내려옴  
그리고 천년왕국,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에 만물이 새롭게 된다. 바로 이때에 온 창조 세상이  
기뻐서 소리 지른다.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들의 의로운 통치

**고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됨에 있어 필수적이다(23-25)**

사람들도 진승들처럼 지금 신음하고 있음

우리 안팎의 부패, 무익함, 헛된 것, 범죄, 썩은 고통을 보라(벧후2:7)

지금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. 지금은 썩을 몸, 그러나 썩지 않을 몸을 기다림(고전15:42-44 ).  
예수님을 믿으면 매일 만사형통, 번영 주장하는 사람을 23절 보아야 한다.

영광 가운데 살지만 주변 환경으로 인해 신음한다. 왜 그런가?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  
그래서 주변의 죄악, 하나님 대적하는 것을 보면 신음하게 된다.

그런데 창조 세상이 소망 중에 회복을 기다리는 것같이 우리도 그렇다(24-25).

다만 인내로 기다린다(25).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신음하게 된다.

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적: 신음하며 인내로 기다린다.

몸의 구속을 받으면: 육체의 질병 다시는 없다(암, 뇌출혈, 중풍, 치매), 경제적 어려움 다시는 없다.

사랑하는 이를 잃고 우는 것 다시는 없다.

그리스도인이기에 고통과 고난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은 마귀의 가르침

**이 고통을 이기게 해 주시는 분: 성령님(26-27)**

어떤 분들은 이 구절들이 방언이다. No way!

1.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나 그리스도로 인해, 주변의 죄로 인해, 자기의 병약함으로 인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문맥
2. 성도들의 문제: 26절, 말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.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름.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.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고 그저 “주여, 아버지”하고 외친다. 더 이상 무엇이 있겠는가? 바로 이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동참하시면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해서 증보해 주신다.
3.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: 사실 많은 경우 나는 이것을 믿는다. 긴 기도 못한다. 하루 종일 성경 교정, 오직 그 일, 전 시간 할애, 저녁에 누울 시간이 되면 다른 생각 없다. “주여, 다 하고 잡니다. 도와주십시오!”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. 오용하지 말라. 전 시간을 주님께 드린 사람의 고백이다.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이 대신 해 주신다.

### 결론

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분과 함께 영광에 참여, 모든 것의 공동 상속자

그런데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있다: 그리스도로 인한 고통, 죄로 인한 고통

이 세상이 너무 맞지 않아서 고통,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끌고 가는 정부를 보면서 고통, 아무것도 모르는  
국민들 보면서 고통, 이것이 나타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, 성령님께 신음 소리를 낸 적이 있나?

말로 표현이 안 된다. 끄떡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신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

육신의 질병, 연약함, 경제 문제, 주변 가족 불신, 무엇이든 놓고 “주여, 아버지, 도와주십시오”